

## 2012년도 예산편성 의견서

(2011.9.29)

의견제출자	최 ○ ○ (가산동)	
위원회 명	성명	연락처
주민참여예산위원	최 ○○	-
사업개요	관내 중,고등학교 교육과 금천구청이 연계(지방자치 등)해서 참여예산 교육을 진행하고 사업을 집행한다. 학생들은 자치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정치 과정을 직접 체험을 통해 알수 있게 한다.	
사업명	청소년 꿈과 능력을 키우는 금천구 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업	
위치	금천구 전역	
사업내용 (사업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중,고등학교 교육과 금천구청이 연계(지방자치 등)해서 참여예산 교육을 진행한다.(3월)</li> <li>- 금천구 청소년 의회 구성 : 금천구 관내의 중, 고등 학교에서 7명씩을 선발해서 금천구 의회에 파견해 금천구 청소년 의회를 구성한다.(5월)</li> <li>- 관내 학교의 학생회는 학급별 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요구를 집약해서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금천구 청소년 의회에 제출한다.(5월)</li> <li>- 학생들은 “새로운 사물함 설치, 복도에 놓을 벤치, 휴식 시간을 위한 휴게실 편의 시설, 운동장의 놀이 기구나 운동 설비, 화장실 수선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개선 요구”를 학생자치활동(학급회의, 학생회 운영위원회)을 통해서 의견을 발표하고 결정한다.</li> <li>- 금천구 청소년 의회 : 각 학교의 대표는 사업을 발표하고, 의회는 사업을 심의 의결.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안의 경우 예산을 추가적으</li> </ul>	

	<p>로 올려준다.(6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천구의회, 금천구청은 청소년 의회의 의결을 사업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6월 ~ 10월)</li> <li>- 금천구 청소년 의회 : 금천구 청소년 참여예산 사업 집행결과를 모니터 함. 집행된 사업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2012 청소년 참여예산사업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우수 사업을 선정하고 2012년 청소년 참여예산 사업을 종료함. (11월 ~ 12월)</li> </ul>
<p><b>사업 취지 (기대효과)</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학습과 생활에서 자기주도적 역할을 높힐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정치과정을 학습하고 이해할수 있다.</li> <li>2) 참여예산 사업 과정에서 정치(지방자치)가 구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 있음을 알수 있다.</li> <li>3) 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 금천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도입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일수 있다.</li> </ol>
<p><b>예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예산사업 : 96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3백만원*9개 중학교 = 2700만원</li> <li>* 고등학교 6백만원*6개 = 5400만원</li> <li>* 우수사업 증액 사업비 1500만원(3백만원 * 5개 학교)</li> </ul> </li> <li>- 교육비, 홍보비 : 1000만원 (홍보자료 및 참여예산 교육 강사비)</li> <li>- 청소년 의회 운영비 : 105명*3회* 1만원(점심 및 음료비) = 315만원</li> <li>- 추진비 3백만원</li> <li>- <b>합계 : 1억 1천 2백 15만원</b></li> </ul>
<p><b>금천구청장 귀하</b></p>	

[참고자료 - 해외사례]

## 핀란드식 시민교육 ‘헬싱키청소년의 목소리’와 ‘열린 포럼’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는, 매년 3월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헬싱키 시장과 초중고 학교 학생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소년의 목소리 회의(the Voice of the Young Mayor’s meeting)’가 열린다. 각 학교에서 온 2명씩의 학생 대표들은 미리 준비해 온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토론을 거쳐 학교별 예산 배당을 투표로 확정한다. 학생들만이 아니라, 시의원들이나 시민단체, 언론사 대표나 기자들도 초대되어 방청할 수 있다.

2008년에 청소년의 목소리 회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60만 유로(약 9억8천만 원). 이 예산은 헬싱키 시 전체 예산 가운데 학교 기초시설 개선 예산의 일부를 할애한 것이다. 시장과 학생들이 함께 한 이 회의에서 배분하기로 결정된 예산은 별도의 의결 과정이 없이 곧바로 확정된다.

학생 대표들이 발표하는 프로젝트들은, 각 학교별로 ‘미래 워크숍’(Future Workshop)이라는 회의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미래 워크숍’은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워크숍 겸 의사결정 절차로, 1차는 학급에서 2차는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새로운 사물함 설치, 복도에 놓을 벤치, 휴식 시간을 위한 휴게실 편의 시설, 운동장의 놀이 기구나 운동 설비, 화장실 수선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개선 요구들이 ‘미래 워크숍’을 통해 결정된다.

‘청소년의 목소리 회의’는 당초 헬싱키 시에서 시범운영하다가, 2003~2007년까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청소년 참여 프로젝트’를 계기로 본격화 되고 다른 지자체에 널리 전파되었다. 파보 리뽀넨(Paavo Lipponen) 총리가 주관하고 교육부와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가 함께 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각 급 학교의 학생회를 활성화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며 민주주의를 체험으로 배워 능동적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헬싱키 시는, ‘학교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던 ‘청소년의 목소리 회의’를 올해부터는 ‘학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포함시켜 좀 더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학교 공동체를 향상시키고, 어린이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자신들이 영향

을 미쳐서) 변화시켜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로 중기 계획을 세웠다.

헬싱키 시는 이와 함께, 매 년 시내 곳곳에서 초중고생들과 시의원, 시 행정가 등이 함께 만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열린 포럼’(Open Forum)을 개최한다. 열린 포럼의 목적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의 정치인들과 그들이 다루는 사회적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친숙해지게 함은 물론,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나 요구를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핀란드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PISA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의 뛰어난 성취를 인정받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참여를 제도화하고 허심탄회하게 지원하여 그들의 기(氣)를 한껏 살려주려는 정치인과 교육자, 행정가들과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 자신들의 견해와 주장에 귀 기울이고 지지해주는 사회 안에서 핀란드 청소년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며 미래를 짊어질 든든한 동량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